한국지리학회지 5권 1호 2016(1~11)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구조 분석

이동민*

Analyzing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2015 Revised High School Travel Geography Curriculum

Dong-min Lee*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원문을 한글 기반 의미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구조는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리학의 주요 개념, 그리고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사항이자 진로선택 교과의 신설 배경이기도 한 미래사회 및 진로 관련 개념들을 통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신설된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과목 신설의 취지 및 목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여행지리 과목의 교육과정이 보다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려면, 여행이라는 주제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육활동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적용되어 '여행지리'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하게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주요어 : 여행지리,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분석, KrKwic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high school travel geography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of South Korea.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travel geography curriculum was analyzed using the KrKwic, which is a sematic analytic software that processes Korean linguistic ma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keyword *travel* had a semantic pattern that linked geographic concepts and career education, which was one of the problems faced by the earlier curriculum. This is considered a positive pattern because it implies that the new travel geography curriculum greatly reflect the subject's educational objectives. This study proposes to strengthen learners' understanding of travel geography by creating more links between travel to other target geographic and educational concepts. These changes in learners and travel geography curriculum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identity of *travel geography*.
Key Words : Travel geography, 2015 revised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Semantic analysis, KrKwic

I. 서론

여행은 지리학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왔다. 이븐 바투타, 마르코 폴로, 알렉산드르 폰 훔볼트 등의 여행기 및 답사기가 지리학의 발달에 큰 획을 남겼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당대의 지리적 발견으로 지리 지식의 증대 및 지리학 발전에 기여했고 사람들의 지리적 호기심을 충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지리적 인식 및 재현 양상을 보여 주는 문화역사지리적 자료로 중요시되고 있다(김미영, 2013; 우미영, 2009).

한편 오늘날에는 소득 증대,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여행은 관광활동, 문화생활,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 수렴에 발맞추어, 여행은 일상생활의 일부로 파고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초빙교수(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dr.dongminlee@gmail.com)

들고 있다(Hannam, 2002; Neal *et al.*, 1999; Thomas and Thomas, 2005). 이에 따라 여행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의 교육적 가치 또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지리영역에 여행지리 과목이 진로선택 교과의 하나로 신설되었다. 여행지리는 융합학습, 진로교육, 실생활 체험 등에 초점을 맞춘 과목으로, 여행을 주제로 지리적 지식, 기능, 태도의 함양은 물론 통합적·융합적 사고력에 바탕한 시민성, 공감능력, 문제해결력 함양,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진로탐색을 위한 통찰력, 상상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둔다(심승희·김현주, 2016).

여행지리는 신설 과목인 만큼 새로운 과목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과목 신설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지리 과목이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과목의 목표, 역량 등을 명료하게 진술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실에서의 실제 수업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시도와 노력은 여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성취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어떤 개념들을 핵심 개념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어떠한 의미구조를 형성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내용 요소라 할 수 있는 성취기준이 여행지리의 도입 취지, 목표,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구조를 한글 내용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 및 의미연결망 분석 소프트웨어인 UciNet을 활용하여 분석, 시각화하였다. 연구결과는 신설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의의와 한계를 이해하고 향후 여행지리 교육과정 개정 및 관련 교과서 집필, 교수·학습활동 실천 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II. 여행의 지리교육적 의미와 여행지리 과목의 신설 배경

1. 여행의 의미와 지리교육적 가치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 유람, 여흥 등의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지칭한다. 즉, 새로운 장소나 지역으로의 '이동'이 여행이라는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이다(김학희, 2006). 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휴식이나 관광 등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 있는가 하면, 행상, 출장 등 생계나 직업상의 목적을 가진 여행도 있다. 학술, 성지 순례, 해외 이주, 군사상의 원정, 영토 개척 등과 같은 활동 또한 특정 장소로의 이동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여행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Carvalho, 2004).

근대 이전까지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여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고 자연재해나 범죄자의 습격과 같은 위험성이 높았던 데다 여행에 제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1]에, 일반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정치영, 2013; Jansen, 1994; Wolfe, 2015). 19세기말-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통·통신의 발달 및 개인소득의 증가, 치안의 개선, 여행산업 발달 등이 이루어지면서 여행은 급속도로 대중화되기에 이른다(Thomas and Thomas, 2005; Tobin, 1974).

한편 여행은 관광과는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여가 활동의 하나로 대중화된 관광은 관광지로의 이동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행의 속성을 가지며, '신혼여행', '여행사' 등의 용어가 시사하듯 여행과 동일시되는 풍조도 있다(김학희, 2006; Neal *et al.*, 1999). 하지만 관광은 어디까지나 여행의 한 유형일 뿐이지 '여행=관광'과 같이 도식화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행은 관광 여행과 비관광 여행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며, 관광 여행이라 하더라도 관광객이 아닌 가이드, 승무원 등은 관광이 아닌 업무를 위해 여행하기 때문이다(김학희, 2006).[2]

여행은 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활동이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학은 탐사, 견문, 현지 조사 등 일종의 여행을 통해서 발달해 왔으며, 지리학의 중요하면서도 특징적인 자료·정보 획득 방법인 답사 또한 일종의 여행에 해당한다(김학희, 2006; 정진규, 2014; Downs, 1994). 이러한 점에서 여행은 지리학적으로 가장 기초적, 기본적이면서도 지리 고유의 특성이 강한 지식 획득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적 의의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예컨대 중세 기사들의 교육 방법이었던 무사수행(knight errantry)은 여행을 통한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18세기 영국의 상류층 사이에서 청소년들을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하여 지식과 견문, 교양을 넓히려는 일종의 교육 활동이 유행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김학희, 2006; Cohen, 2005; Lazerson, 1996).

여행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지리교육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여행은 지리학 고유의 지식 획득 방법이며 지리학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활동이기도 한 답사, 새로운 장소와 경관에 대한 체험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리교육에 있어서는 근원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Downs, 1994; Sauer, 1956). 여행은 지리 및 장소, 지역 등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오늘날 여행은 즐거움 또는 목적의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새로운 경관과 지리적 맥락에 대한 호기심과도 직결되며, 이러한 것들이 여행자의 이야기, 즉 내러티브와 어우러지기도 하면서 지리적 호기심과 흥미, 상상력을 유발,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김정아·남상준, 2005; 김창환·정해용, 2014; 김학희, 2006; 옥한석, 2010; Bednarz, 1999).

물론 여행의 한계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여행은 특정한 이념이나 관점 등에 의해 왜곡될 소지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희상(2008)은 19세기 서구인의 시각으로 집필된 여행 문학이 갖는 지리교육적 가치는 무시하기 어렵지만, 서구 중심, 백인 중심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집필되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여행은 목적, 일정, 경로, 콘텐츠의 내용과 질적 수준 등에 제약을 받으며, 안전,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박종관, 2015; Mcquinness and Simm, 2005). 따라서 여행에 대한 지리교육적 접근에 있어서는 상술한 의의와 더불어 이 같은 제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여행지리 과목의 신설 배경

최근 들어 여행을 주제 또는 중심 논리로 하는 지리교육과정 편성의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류재명(2002)은 7차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을 한국지리, 여행지리, 환경지리의 세 영역으로 재편하고, 여행지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흥미 제고, 능동적 학습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리교육과정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기존의 경제지리 대신 여행지리를 사회과 지리영역 선택과목으로 선정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진 바 있으며, 세계지리 교육과정에 여행을 주제로 한 영역이 신설되는 등 여행을 지리교육에 반영하자는 논의가 어느 정도 실천에 옮겨지기도 하였다(권정화, 2007). 이러한 형태의 단원 구성은 인구 이동, 지역 변화, 문화적 차이와 갈등 등과 관련하여 다문화 지리교육 실천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기도 하였다(김미순, 2012).

이처럼 여행을 주제로 한 지리 과목, 즉 여행지리 과목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모토 하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 진로 선택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여행지리'를 진로 선택과목으로 최종 선정하였다(심승희·김현주, 2016).

여행지리 교육과정은 여행이라는 주제와 틀을 바탕으로 유용성과 흥미,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미래사회의 변화 및 진로탐색에 대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며, 목표와 성취기준의 진술, 내용 요소 선정 등은 핵심 역량 및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심승희·김현주, 2016). 구체적인 목표 및 역량은 표 1에 언급하였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리적 지식과 기능 및 태도, 시민성, 진로탐색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설계

1. 분석대상 및 기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원문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지향점을 의미하며, 교과서의 실질적인 집필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구체적인 수업 활동 및 평가의 기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교육적 중요성이 높다(박철웅, 2012; 최정순·설규주, 2014; Sadler, 1987). 지리교육에서 라틴아메리카 도시구조에 대한 서술과 재현이 갖는 문제점 분석을 위해 세계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도시 및 라틴아메리카 관련 서술을 분석한 김한승·신정엽(2015)의 연구는, 이 같은 성취기준의 의미와 중요성을 시사한다고도 풀이된다.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성취기준 원문

표 1.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 및 역량

항 목	내 용
목 표	여행지리는 현대의 삶과 여가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여행 및 관광 현상에 직면하여 현재 및 미래의 직·간접적 여행자가 될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바람직한 여행의 의미를 성찰하고 여행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한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공공선에 기반을 두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에 맞는 여행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연 환경, 자연과 인간의 관계, 지역과 지역, 세계와 지역 간 관계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획득, 조직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토대로 통합적 탐구력,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의 만남에서 요구되는 지리적 관찰력과 감수성, 상상력, 다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인류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공동체 의식 및 공동체에의 참여 능력 등을 기르고자 한다.
역 량	가. 의미 있고 바람직한 여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익힘으로써 통합적 탐구력과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른다. 나. 국내 및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특성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존중·배려 그리고 소통과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 여행의 특성과 변화를 통해 현대사회의 특성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고, 자신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진로 탐색 능력,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사회참여 능력을 기른다.

출처 :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웹사이트 중 우리나라 교육과정 원문 인벤토리(http://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최종 접속일: 2016.2.20.)

은 약 730단어 분량으로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라는 단원명을 가진 6개 단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내용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중 우리나라 교육과정 원문인벤토리(http://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최종 접속일: 2016. 2.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3)]

한편 분석기준은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목표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추상적이고 전체적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인 만큼, 교육과정 목표를 성취기준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정신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핵심개념들이 형성하는 의미구조를 교육과정의 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분석틀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기법에 입각하여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원문의 의미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이란 텍스트로부터 핵심어를 추출하고 이들이 상호연결·관련된 패턴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분석기법으로, 텍스트의 내용 및 의미를 표면적인 수준을 넘어서 심층적, 구조적, 맥락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성열관, 2010; Neuendorf, 2002). 이 같은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서,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특정 핵심어 또는 중요 개념들(예: 여행, 지리, 진로 등)을 단순히 표면상으로만 언급하고 있는가의 수준을 넘어서 이 같은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위치에 위치하는지, 텍스트 내부에서 핵심개념들이 위치하고 상호연결되며 이루는 구조가 과목의 목적 또는 도입취지에 적절한지 등의 여부를 보다 구체적,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4)] 다시 말해서,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서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어떤 문구 또는 개념들을 담고 있는가의 수준을 넘어서, 어떠한 개념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들 개념 간의 상호연결성과 관련성, 중심적-주변적 위치 등이 어떠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텍스트의 실질적인 핵심 개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은 상호간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텍스트가 어떤 개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어떠한 부분을 강조 또는 간과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구조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내용분석 기법의 가장 핵심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내용분석 기법은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글 텍스트의 내용분석을 위해 개발된 내용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을 사용하였다. KrKwic 실행 파일 및 매뉴얼(박한우·Leydesdorff, 2004)은 박한우 영남대학교 교수의 웹사이트[5]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6] 무료 컨텐츠인 데다 한글 기반의 내용분석 소프트웨어라는 장점으로 인해 경영학, 교육학, 행정학 등 여러 분야의 내용분석 연구에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박한우·이연옥, 2009; 성열관, 2010; 이진명·나종연, 2015; 정덕호 등, 2013; 조은설, 2013).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이동민, 2014) 및 중등지리(이동민·고아라, 2015) 성취기준의 의미구조를 분석하는데 활용된 바 있다.

KrKwic은 krkwic.exe, krtitle.exe, krwords.exe의 3개 파일로 구성되며, krword.exe 파일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단어들로 해체한 다음 이 단어들로부터 조사나 부사 등 불필요한 단어, 출현빈도가 낮아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단어,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단어 등을 제거하고 핵심개념들을 추출한다. 핵심개념 추출은 내용분석을 위한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내용분석은 추출된 핵심개념 및 그 출현빈도를 토대로, 어떠한 핵심개념들이 중심적 또는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어떤 개념들끼리 긴밀하게 상호연결되는가의 여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텍스트 분석기법이다(김동일 등, 2014; Neuendorf, 2002). 따라서 추출된 핵심어들이 상호 연결되고 관련되는 패턴 및 위치의 중심성/주변성 등을 구조화하는 작업은 내용분석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KrKwic에서도 가장 중요성이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KrKwic의 구성 파일이 바로 krtitle.exe 파일이다. krtitle.exe 파일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UciNet, Pajek 등 사회관계망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시각화하거나 산출된 데이터를 표기할 수 있는데,[7] 본 연구에서는 Ucinet(버전 6)을 활용하였다. 먼저 Ucinet이 제공하는 관계망 시각화 도구인 NetDraw를 활용하여, 핵심개념들이 상호연결되며 형성하는 패턴을 시각화한 자료인 의미연결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의미연결망 내에서 핵심개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심적 또는 주변적인가를 보다 상세히 수치화할 수 있도록, 핵심개념들의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UciNet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결중심성은 의미연결망에서 핵심개념들이 상호연결된 관계를 수치화한 것으로 어떠한 핵심개념이 다른 핵심개념에 의해 선택된 정도를 토대로 산출되며, 연결중심성이 높을수록 의미연결망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놓은 허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이동민, 2014; 조은설, 2013).

본 연구에서는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핵심개념들의 의미연결망을 도출하고 연결중심성을 산출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어떤 개념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분석, 패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여행을 중심으로 지리적 지식, 기능, 태도 및 시민성과 진로탐색 능력 함양을 추구하는 진로 선택과목'이라는 과목의 목표 및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반영, 구조화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V. 분석 결과

1. 핵심개념 및 출현빈도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원문을 KrKwic으로 분석한 결과 411개의 단어들이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조사 등 불필요한 단어 및 연구목적과는 무관한 단어들을 제거하고 동일한 단어들은 통합(예: 대안여행의, 대안여행이→대안여행)하여 최종적으로 총 23개의 핵심개념들을 도출하였다(그림 1).

핵심어들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핵심어는, 46회 출현한 '여행'이다. 이는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지역'의 출현빈도(18회)보다도 두 배 가 넘는 수치이며,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과는 달리 '여행'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데 기인하는 특성으로 판단된다. 그 뒤를 이어 '문화'(11회), '관광'(10회), '산업' 및 '여행지'(각 9회) 등이 출현도가 높은 핵심어들로 분석되었다.

핵심어들을 살펴보면 기후, 지형, 도시, 촌락, 세계 등 지리학 고유의 개념들이 포함된 한편으로, 생태, 환경, 지속 등 환경 및 환경지리와 관련된 개념들, 진로, 미래 등 교육 자체와 관련되는 개념들, 축제, 여행, 관광 등 여행 및 관광에 직결된 개념들이 빈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여행'이 4회 출현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대안여행 또는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소비지향적, 획일적이면서 여행객(관광객)과 여행지가 분리된 객체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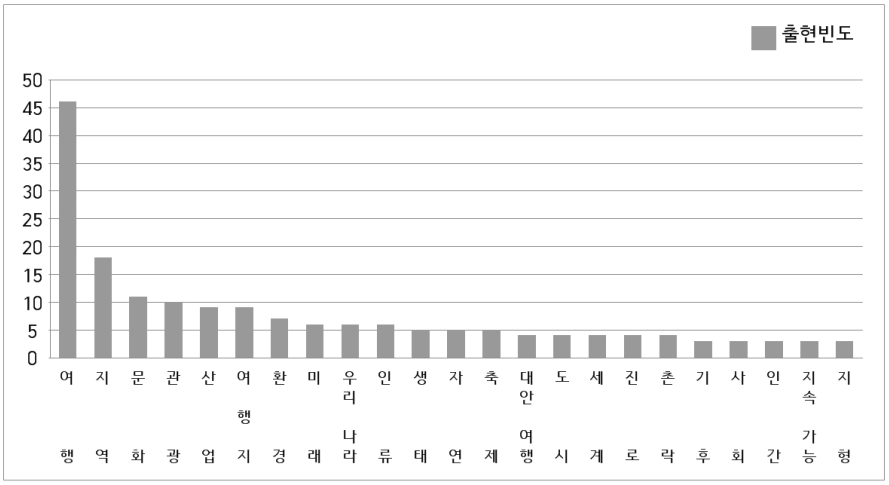

그림 1.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개념 및 출현 빈도

행 행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관광지의 환경과 생활방식,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존·존중하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관광,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들이 상호존중하며 공존하는 관광, 기존의 관광행태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하면서도 관광객 개개인에게 고유한 의미를 주는 관광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이다 (Bednarz, 1999; Gursoy *et al.*, 2009). 이는 여행 또는 관광을 한층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핵심개념들의 의미연결망 분석

앞 절에서 산출한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핵심개념들이 어떠한 구조와 형태를 이루며 상호연결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의 의미연결망을 그림 2와 같이 도출하였다. 의미연결망에서는 중앙에 인접한 핵심개념일수록 텍스트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개념들을 연결한 선의 굵기는 해당 개념들 간의 상호연결 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노드의 크기는 연결된 개념들과의 연결 강도를 의미하는 진입 차수와 비례한다 (ONA Surveys, 2009; Wasserman and Faust, 1994).[8)]

그림 2를 살펴보면 지역과 여행을 중심으로 각 개념들이 연결되는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지역의 좌측으로는 지형, 기후, 자연 등 지리 관련 개념들이 분포하며, 환경이라든가 지속가능과 같은 환경 관련 개념들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여행의 우측에는 진로, 미래, 사회 등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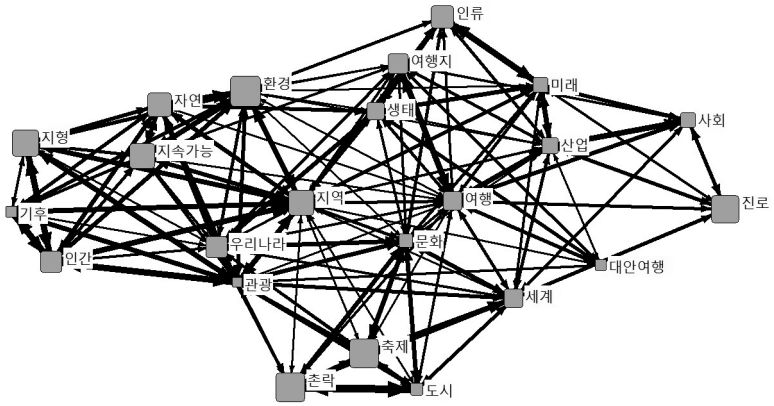

그림 2.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핵심개념들의 의미연결망

표 2.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 핵심개념들의 연결중심성

순 위	핵심개념	연결중심성	순 위	핵심개념	연결중심성
1	지 역	6.798	14	생 태	3.258
2	관 광	6.367	15	지속가능	3.222
3	여 행	5.078	16	도 시	3.053
4	환 경	4.956		촌 락	
5	인 간	4.571	18	축 제	2.808
6	자 연	4.516	19	여행지	2.668
7	문 화	4.441	20	인 류	2.453
8	우리나라	4.318	21	사 회	2.340
9	세 계	3.807	22	진 로	1.677
10	산 업	3.564	23	대안여행	1.385
11	미 래	3.438			
12	기 후	3.315			
	지 형				

선택과목의 성격과 관련된 개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즉,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핵심개념들은 여행, 지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지리 고유의 개념 및 진로선택과목적 개념들이 연결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를,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여행을 주제로 하여 지리 고유의 내용 및 진로교육/시민성교육 관련 내용들을 연결 짓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3. 핵심개념들의 연결중심성 분석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연결망 내부에서 핵심개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심적인가, 또는 주변적인가를 수치화한 자료인 연결중심성 값은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핵심개념은 '지역'이다. 이어서 '관광', '여행', '환경' 등의 개념이 각각 2위,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부에서 중심적인 개념들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사회', '진로', '대안여행' 등의 핵심개념은 연결중심성이 낮은 개념, 즉 핵심개념들 중에서는 주변적인 성격이 강한 개념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에서 확인하였던, '여행'과 '지역'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최중심에 위치하면서 지리 관련 개념들 및 진로교육 관련 개념들을 연결 짓는 형태의 의미연결망 패턴에 대한 추가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우선 그림 2에서 지역과 더불어 의미연결망의 최중심에 위치했던 '여행'의 경우, 연결중심성은 '지역', '관광'에 이어 3위이며 그 값 또한 5.078로 6점대인 앞의 두 개념과 무시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행'은 출현 빈도가 타 개념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의미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여타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정도는 다소 낮은 측면도 있다. '여행'과 유사한 개념이자 의미상 하위개념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개념이면서 의미연결망에서는 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개념인 '관광'의 연결중심성 값은 오히려 '여행'보다 높다는 사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여행을 관광과 동일시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중요하고 밀접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V. 논의

앞 장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개정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가진 지리교육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여행을 핵심적인 위치에 놓고 지리학 및 진로교육

관련 개념들을 연결 짓는 의미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신설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여행을 주제로 한 지리 교육과정 신설 또는 개정의 요구를 명목상으로는 물론 교육과정 내용상에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행지리 교육과정은 여행을 주제로 한 지리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교육적, 사회적 요구에 걸맞는 '여행지리' 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15 개정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지리학적 개념들은 물론 진로, 사회, 미래 등 진로교육 내지는 범교과적 개념들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신설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여행과 관련된 정체성뿐만 아니라 진로선택 과목이라는 정체성 또한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단순히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진 지리 과목이 하나 더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여행이라는 주제와 지리라는 교과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리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의의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환경, 생태, 지속가능성 등 오늘날 교육적·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과제들과 관련된 개념 및 대안여행이라는 개념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은 지리교육을 통해서 함양해야 할 시민성 요소들 중에서도 오늘날 특히 중요하게 요구받는 것들이며(이동민·고아라, 2015), 대안여행은 기존의 여행이 가진 한계 또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리 및 여행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개념들이다. 이 같은 개념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핵심개념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지리교육을 통한 시민성 함양이라든가 여행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과 같은 요소 역시 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지리교육적 시사점들을 적지 않게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 또한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지리 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여행'은 여타 핵심개념들에 비해서도 출현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의미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연결중심성 또한 높다. 하지만 출현빈도에 비하면 연결중심성이라든가 진입 차수 등의 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의미구조가 여행지리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지역', '관광' 등 다른 핵심개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여행지리 고유의 의미와 정체성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그림 2와 표 2를 살펴보면 2015 개정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는 여행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관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기는 어렵겠지만, 관광이 여행의 전부는 아니며 답사, 노동력의 이동 등 관광 목적과는 무관한 여행 역시 지리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취기준 원문 가운데 1단원(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에도 '책이나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행 사례를 통해 다양한 여행의 의미와 종류를 찾아본다'는 문구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같은 취지가 문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내용 및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 또한 요청된다.

VI.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여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리학적 내용과 진로 관련 내용을 연결 짓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과목의 도입 취지 및 목표 및 여행지리만의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신설 여행지리 과목이 교육현장에 자리매김하는데 필요조건이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지리교육적 의의를 무시하기 어렵다. 더불어 이러한 구조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리적 능력과 진로 탐색/선택 능력을 제고한다는 과목 신설의 취지 및 목표를 교육과정상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같은 연구결과 및 논의는 '여행을 주제로 한 지리 진로 선택과목'으로서 여행지리 과목이 갖는 정체성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후속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제시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여행지리 과목의 효과적인 정착에 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여행지리 과목은 신설되는 진로 선택과목의 하나로, 일반 선택과목과 달리 지리 고유의 내용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적 측면이 크게 강조된다(심승희·김현주, 2016; 이윤복·강현석, 2015). 따라서 여행지리 과목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여행지리를 단순히 '여행을 중심으로 한 지리 과목'이 아닌 '여행을 중심으로 진로탐색 및 학생들의 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지리 과목'으로서의 접근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이 같은 진로교육, 범교과교육 관련 요소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기존의 지리 과목과는 차별화되는 여행지리 고유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려면 이 같은 성격이 교과서 집필, 교실에서의 교수-학습활동 등이 실제로 이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행지리는 수능시험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이라는 점에서(심승희·김현주, 2016), 이 과목이 입시위주 교육 현실에서 유명무실화되지 않고 제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여행지리 과목이 교육 현장에 온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때, 여행지리 과목의 설립 취지 및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의 또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註

1) 일례로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지배 계급에 속했던 사무라이들조차도 영주의 허가 없이 자신이 속한 영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수 없었으며, 만일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형 등 중형에 처해졌다(Jansen, 1994).
2) 흔히 관광 및 레저업을 주관하는 업체로 알려진 여행사 역시, 성지순례, 해외 유학 등 관광이나 레저, 휴양, 여가 등의 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형태의 여행 또한 주관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리치엔, 2013; 이재수, 2011).
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 정도 분량의 텍스트 문서는 KrKwic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이 같은 형식의 분석을 통해 문서의 의미구조가 갖는 의의 및 개산보완이 필요한 점을 도출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김동일 등, 2014; 박한우·Leydesdorff, 2004; 이동민, 2014; 이동민·고아라, 2015).
4) 일례로 이동민(2014)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이 세계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리영역 성취기준에는 이 같은 목표와 직결된 내용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을 통한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목표가 명목상의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교육과정 개발 과정이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 적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완전무결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교육과정의 목표, 신설 취지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의미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5) http://www.hanpark.net/, 최종 접속일: 2016. 2. 20.
6) 박한우 교수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KrKwic을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를 포함한 영리 목적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 같은 연구의 경우 무료 컨텐츠인 KrKwic 대신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등에 의뢰하여 그에 적합한 내용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뉴얼인 박한우·Leydesdorff(2004)의 논문을 반드시 연구 저작물에 인용할 것 또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7) KrKwic을 활용한 의미분석의 보다 상세한 방법은 이동민·고아라(2015)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8) 여기서 유의할 사안은, 진입차수가 높은 개념이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진입차수란 연결된 개념과의 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연결망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더라도 연결된 개념과의 강도가 강하면 진입차수가 높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그림 2를 보더라도 '촌락', '진로' 등 주변부에 위치한 핵심개념들이 '지역', '여행' 등 최중심부의 핵심개념보다 진입차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자들이 후자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핵심개념들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일단 연결된 핵심개념들과의 연결 강도 자체는 오히려 후자들보다도 강한데 기인하는 결과이다. 즉, '촌락', '진로' 등의 핵심개념은 주변부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개념들과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정화, 2007, "지리과 차기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 및 개정 의의," 교원교육, 23(1), 117-126.

김동일·백서연·고혜정, 2014,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 실태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분석,"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4), 49-66.

김미순, 2012,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지리교육적 함의: 안산시 사례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234-269.

김미영, 2013,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50, 9-33.

김정아·남상준, 2005, "장소 중심 지리교육내용의 구성 원리의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85-96.

김창환·정해용, 2014, "교육과 학습의 장(場)으로서 지질공원 활용에 관한 연구: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3(2), 89-96.

김학희, 2006, "세계지리에서 여행의 교육적 의미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3), 231-250.

김한승·신정엽, 2015, "라틴아메리카 도시 구조 모델의 비판적 고찰과 고등학교 지리교육에의 함의," 한국지리학회지, 4(2), 265-277.

류재명, 2002, "한국 지리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1), 27-40.

리치엔, 2013, "한국 여행사의 서비스품질과 브랜드 자산이 중국 유학생의 만족 및 관계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관, 2015, "새로운 관광수단으로서 지리여행의 콘텐츠 구성과 활용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50(1), 53-71.

박철웅, 2012,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리교육의 현재와 문제점," 한국지리학회지, 1(1), 11-17.

박한우·Leydesdorff,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7.

박한우·이연옥, 2009, "복합적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포털 댓글에 관한 연구: 17대 대통령 선거 기간 미디어 '다음'에 게시된 광운대 BBK 동영상,"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2), 731-744.

성열관, 2010,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국제교육의 관점과 개념 분석: 영국 국가교육과정 지침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7, 23-42.

심승희·김현주,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진로선택과목 「여행지리」의 개발과 관련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87-98.

옥한석, 2010, "인터넷 여행기 분석에 의한 대중의 지리적 관심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2), 185-198.

우미영, 2009, "古都 여행, 과거의 발견과 영토 소비: 식민지 시대 경주 기행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46, 113-140.

이동민, 2014, "초등지리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9(6), 949-969.

이동민·고아라, 2015, "중등지리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54(3), 1-19.

이윤복·강현석,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분석 및 그 시사점 탐구," 중등교육연구, 63(4), 435-464.

이재수, 2011, "한국 정토신앙 성지 순례코스 개발 연구," 정토학연구, 15, 217-257.

이진명·나종연, 2015,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소비자 반응분석," 소비자학연구, 26(5), 93-124.

이희상, 2008, "대중지리와 학교지리의 문화적 텍스트로서 모험소설 읽기: 쥘 베른의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3), 215-236.

정덕호·조규성·유대성, 2013, "소집단 활동에서 과학 영재들의 집단 내 의사소통 지위와 언어네트워크," 한국지구과학회지, 34(2), 148-161.

정진규, 2014, "아동의 도시 지리학과 아동 중심 접근: 고찰 및 성찰," 한국지리학회지, 3(2), 159-174.

정치영, 2013,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교통수단," 문화역사지리, 25(2), 74-87.

조은설, 2013, "우리나라 여성정책연구의 이슈변화에 대한 네트워크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 119-148.

최정순·설규주, 2014,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 방식 및 구조 분석: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3(2), 1-20.

Bednarz, S.W., 1999, Fieldwork in K-12 geography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8(2), 164-170.

Carvalho, S.N., 2004, *Incidents of Travel and Adventure in the Far West: With Colonel Fremont's Last Expedition Across the Rocky Mountains, Including Three Months' Residence in Utah, and a Perilous Trip Across the Great American Desert to the*

Pacific,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Cohen, M., 2005, "Manners" make the man: Politeness, Chivalry, and the construction of masculinity, 1750-1830, *The Journal of British Studies*, 44(2), 312-329.

Downs, R.M., 1994, Being and becoming a geographer: An agenda for geography educ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4(2), 175-191.

Gursoy, D., Chi, C.G., and Dyer, P., 2009, Local's attitudes toward mass and alternative tourism: The case of Sunshine Coast, Austral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49(3), 38-394.

Hannam, K., 2002, Tourism and development 1: Globalization and power,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2(3), 227-234.

Jansen, M.B., 1994, *Sakamoto Ryōma and the Meiji Restor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Lazerson, M., 1996, Knight errantry & undergraduate education, *Change: The Magazine of Higher Learning*, 28(5), 56-57.

Mcquinness, M. and Simm, D., 2005, Going global? Long-haul fieldwork in undergraduate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9(2), 241-253.

Neal, J. D., Sirgy, M. J., and Uysal, M., 1999, The role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travel/tourism services and experience in satisfaction with leisure life and overall lif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4(3), 153-163.

Neuendorf, K.A., 2002,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ONA Surveys, 2009, NETDRAW-BASIC: a practical guide to visualizing social networks, Optimice Website (http://www2.optimice.com.au/documents/ONANetdrawGuideBasic.pdf, 최종 접속일: 2016. 2. 21.)

Sadler, D.R., 1987, Specifying and promulgating achievement standards, *Oxford Review of Education*, 13(2), 191-209.

Sauer, C.O., 1956, The education of a geographe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6(3), 287-299.

Thomas, R. and Thomas, H., 2005, Understanding tourism policy-making in urban area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small firms, *Tourism Geographies*, 7(2), 121-137.

Tobin, B.A., 1974, The bicycle boom of the 1890s: The development of private transportation and the birth of the modern tourist,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7(4), 838-849.

Wasserman, S. and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lfe, M., 2015, *One Thousand Roads to Mecca*, New York: Grove Press.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IC) 웹사이트: http://ncic.go.kr/

교신 : 이동민, 2560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이메일: dr.dongminlee@gmail.com)

Correspondence : Dong-min Lee, 25601, 24 Beomil-ro, 579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Email: dr.dongminlee@gmail.com)

투 고 일: 2016년 3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25일
투고확정일: 2016년 3월 26일